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⑥ 보수는 왜 박정희를 배신하는가

2016.11.25. | 정승일 새사연 연구이사,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정책연구소 소장 |
sijeong11@naver.com

뉴라이트 경제학자들과 신문 논설위원들이 제시하는 처방은 '자유 시장의 복원'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1960-80년대의 개발독재 시기에 만들어진 국가주의적 경제구조를 철저히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에 따르면, 국가의 역할은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관리하는 심판관에 머물러야 한다. 아담 스미스와 존 로크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 같은 신자유주의자들이 꿈꾸던 최소국가, 야경국가가 이들의 유토피아이다.

청와대 권력 2인자로 간주되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2014년 임명 시 423억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우병우 가족의 재산이 1천억이 넘는다는 증거가 계속 폭로되고 있다.¹⁾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동원한 증거들이 폭로된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조윤선 전 민정수석 역시 매년 수십억 단위에서 오락가락 하는 수상한 신고 재산 및 예금액과 연간 5억원에 달하는 수상한 소비지출로 2016년 9월 초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다. 우병우와 조윤선 같은 이들은 대한민국 상위 0.01~0.1%에 해당하는 억만장자들(billionaire)이다.

2016년 6월 새로 출범한 20대 국회에서 새로 등록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신고 재산 평균액이 26억원이라는 사실이 잘 보여주듯,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이다. 30억 이상 재산을 신고한 20대 국회의원 중 32명(58%)이 새누리당 또는 친 새누리 무소속 의원이다. 또한 19대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절반이 서울 강남 3구에 고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²⁾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측근 권력에도 강남 3구에 상가와 빌딩 등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이들이 많다.

통계청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2015년 평균 가계 자산은 3억4천만원이다. 살고 있는 자가주택(시세) 또는 전세주택(전세보증금)과 그리고 약간의 예금이 재산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평균적인 국민의 재산과 비슷한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은 정의당 뿐이다.

1) 중앙일보 2016년 7월 22일자.

2) 시사저널 2015년 6월 16일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6년 8월 26일 공개한 20대 국회(2016년 6월 1일 출범) 신규 의원 154명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신고 재산액은 새누리당 26억5824만원, 더불어민주당 16억1736만원, 국민의당 14억7338만원, 정의당 3억8461만원의 순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치는 김병관 의원(2341억)을 제외한 수치이다. 지난 19대 국회 신규 의원 183명의 재산 평균액은 15억원, 제18대 국회 161명은 32억원이었다.³⁾

재산 50억원 이상의 신규 국회의원은 12명(7.8%)이었고 20억~50억원 27명(17.5%)이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백만장자로 대접 받으려면 부동산과 금융자산 합계 20억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20대 국회 신규 의원의 1/4인 39명(25.3%)이 20억 이상을 보유한 백만장자라고 할 수 있다. 신고재산 10억~20억원 국회의원도 37명(24.0%)이다. 그밖에 5억~10억 34명(22.1%), 5억 미만 44명(28.6%)이었다. 신규 국회의원의 절반은 재산이 10억이 넘게, 다른 절반은 10억 미만이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 4월 13일(2016년)의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여야 간에는 때 아닌 재산 논쟁이 벌어졌다. 안형환 새누리당 대변인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가 3억 2천만 원 상당의 금괴 8.2kg와 4천만원짜리 손목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재산이 8년만에 무려 22억이 늘어났다’고 비난한 것이다. 김종인 대표가 자신이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중앙선거위에 신고했기에 벌어진 일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미 투명하게 밝혀진 재산 신고 내역을 가지고 치졸한 정치 공작을 벌인다”며 반박했다. 김종인 대표는 선거에 즈음하여 88억6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한민국 상위 1% 부자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높은 수준의 재산이다.

이렇듯 재산 20억이 넘는 백만장자 국회의원에는 주주자본주의 방향의 재벌개혁과 시장주의 방향의 경제민주화를 외쳐온 김종인 같은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박영선 의원 또한 33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8억 이외에 13억 가치의 수익형 부동산, 14억8천만원 가치의 금융자산, 2억2천만원 가치의 골프장 회원권도 신고했다.⁴⁾

3) 조선일보 2016년 8월 26일자.

4) 미디어오늘 2016년 3월 28일자 기사. 한편 여기서 이상한 점은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박영선 의원의 금융자산이 삼성생명과 삼성증권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을 삼성전자로부터 분리하는 금산분리에 앞장서온 박영선 의원의 그간의 행태를 고려할 때, 이상한 일이다. 이해관계 충돌이 의심된다.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 - 박정희 경제 정신을 짓밟다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 불평등이 본격 심화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며 더구나 1998-2007년 집권한 민주 대통령 치하에서였다. 이 기간 중에 가장 가난한 소득 1분위(하위 20%)의 실질임금이 크게 줄었으며, 더구나 중산층 즉 2분위 및 3분위(소득 20-60%)의 실질임금 역시 줄거나 정체했다. 취업과 연애와 출산을 포기한 삼포 청년세대가 등장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는 비아냥거림이 보수 세력에서 인기를 끌었고 선거 때마다 한나라당(새누리당) 후보들이 승리했다. 이른바 ‘박정희 향수’ 분위기가 넘실거렸고 박근혜는 일약 ‘선거의 여왕’ 으로 등극했다. 많은 서민들, 특히 가장 가난한 서민들은 과거 소득, 재산이 꾸준히 상승하던 개발독재 시절을 그리워했다.

그런데 과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과 한나라당+새누리당의 통치 하에서 지난 9년간 서민들의 생계가 나아졌던가? 결코 그렇지 않다. 낙원은 상위 1% 백만장자들과 상위 0.01% 억만장자들에게만 허락되었고, 대다수 서민과 청년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렸다. 다들 알다시피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서민 살림살이 개선이 아니라 부자 살림살이 개선에 집중했다.

여기서 제기되는 하나의 의문이 있다: 왜 1960-80년대의 30년간 군부독재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공평한 소득분배와 함께 빠른 경제성장까지 달성되었는데, 그에 반해 이명박/박근혜 보수 대통령 및 보수정당 집권 치하에서는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서도 형편없는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일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오늘날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머릿속에 박힌 경제철학과 경제정책이 과거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과거 개발독재 30년간 한국경제를 이끈 인물들이 중상주의 또는 국가주의의 경제 담론과 정책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 그리고 한나라당-새누리당 인사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이른바 시장주의(신자유주의)이며 반(anti) 중상주의, 반 국가주의이다. 자유시장(free market)과 자유기업(free enterprise)을 지고지순한 원칙으로 내세우는 자유기업원의 정신, “민중은 개·돼지에 불과할 뿐” 이라고 믿는 뉴라이트의 정신이 이들의 영혼이다.

박근혜와 박정희는 경제에 관한 한 정반대이다. 딸이 아버지의 정신을 배신한다. 아버지를 이끌었던 경제 정신과 경제성과, 경제정책의 기초를 완전히 뒤집어엎고 정

면으로 부인한다. 그리고는 건전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정신으로 부자증세와 복지 확대,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유승민 의원 같은 이들을 “배신의 정치” 라고 비난한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야말로 자기 아버지 박정희를 배신하는 배신의 정치의 극단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 의식도 없다.

배신의 정치를 부추기는 뉴라이트 경제학

딸이 자기 아버지의 정신을 배신하는 것을 음양으로 돕고 있는 이들이 이른바 뉴라이트(New Rights)와 자유기업원에서 활동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이다. 이들이 어떻게 박정희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배신하는지를 살펴보자.

뉴라이트(New Rights) 진영을 대표하는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엮은 『한국형 시장 경제 체제』라는 제목의 책이 2014년에 발간되었다. 이 책은 오늘날 한국경제가 처한 난관의 근본 원인으로 ‘자유시장(free market)의 결여’를 지적한다. 이 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글에서 이영훈 교수는 ‘한국경제는 여전히 과거 박정희 정부에서 비롯된 국가주의적 시장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보존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한국경제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영훈과 안병직, 그리고 박세일 같은 뉴라이트 학자들은 2016년 오늘날이나 1970년대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한국경제는 여전히 국가주의적 시장경제이며 여전히 자유 시장(free market)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놀랍게도 이것은 ‘오늘날 한국경제에서 발생하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의 근원은 중상주의 또는 국가주의적 경제구조의 유산’이라고 지적하는 장하성과 박상인 등 야권 경제학자들의 발언과 아주 비슷하다.

이영훈 교수 등 뉴라이트 경제학자들과 신문 논설위원들이 제시하는 처방은 따라서 '자유 시장의 복원'이다. 그리고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1960-80년대의 개발독재 시기에 만들어진 - 따라서 박정희식 경제구조에 해당하는 - 국가주의적 경제구조를 철저히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재벌그룹 규제와 노동규제, 환경규제, 수도권 규제 등을 필두로, ‘자유시장 및 자유 기업’ 원칙을 가로막아온 온갖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네덜란드 수준의 완전한 무역개방이 필요하므로 FTA와 TPP 등 온갖 자유무역 협정이 필수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자유로운 인간들이 국가의 간섭과 개입 없이 자유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의 역할은 공정한 법치의 역할, 즉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관리하는 심판관에 머물러야 한다. 아담 스미스와 존 로크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 같은 신자유주의자들이 꿈꾸던 최소국가, 야경국가가 이들의 유토피아이다.

이영훈과 안병직, 박세일의 외침은 고독한 늑대의 울부짖음이 아니다. 뉴라이트 지식인들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에 앉아있다. 대표적으로 KBS 이사장에 부임한 이인호 전 서울대 교수가 있다. 또한 그들과 똑같이 철두철미 자유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야권과 진보를 비난하는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재 주필도 있다.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이 일상적으로 전파하는 경제관이 ‘자유시장, 자유기업’ 숭배론이다. 또한 그것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이름으로 활동해온 박세일과 이창용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사고방식이기도 하며 더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박재완, 최경환, 강만수, 그리고 김종훈 같은 경제·통상 관료들의 신념이기도 하다.

김영삼·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에서 결정적인 정치적, 정신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안종범과 강석훈, 이영훈, 안병직 같은 경제학자 출신들 그리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경제 관련 발언을 접하다보면 도무지 그들에게 1960-80년대의 30년간 계속된 중상주의 또는 국가주의적 경제성장 시대와 그 성과에 대한 자부심이 단 한 움큼이라도 있는지 의심이 간다. 그들이 1960-80년대의 박정희식 경제체제 즉 30년간 지속된 국가 주도 경제구조의 긍정적 측면을 철저히 부인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향수’는 60대 이상 노년층만이 아니라 한국 보수파들(여기엔 일베 청년들도 포함)이 공유하는 뿌리 깊은 정서적 공감대이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유지에 박정희 향수라는 정서적 공감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에서 경제사회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경제학자와 경제관료들의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다. 과거 박정희 정부를 이끌었던 경제정신과 성과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가당착에 빠진 한국 보수파의 오락가락 경제관에 대하여 나는 장하준 교수와 함께 2012년에 발간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첫 장에서 비판적으로 지적한바 있다. 장하성 역시 자신의 2014년 책 『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경제정의로』에서 “보수 우파의 ‘박정희 향수’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형용 모순이며 시대착오적이다”고 비판했다(93쪽). 이병천 역시 자신의 책 『한국자본주의 모델』의 제1부에서 “‘이영훈 같은 뉴라이트 경제학자들은 정작 한강의 기적을 낳은 박정희가 취한 국가주도 경제성장론을 거부한다”고 비판했다.(80쪽).

그런데 사실 과거 1960-80년대의 시기, 1990년대 중반 이전의 시기에 달성된 상대적으로 공평했던 소득분배와 빠른 경제성장의 비결을 국가 주도 개입주의 또는 중상주의에서 찾는 경제학자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드물다. 장하준 교수를 제외할 때

대다수 보수 경제학자와 대다수 야권 경제학자들이 각기 다른 이유에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맹렬히 부인한다.

뉴라이트 보수와 친시장 민주진보의 공통점 : 친 자유시장, 반(反) 복지국가

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그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그러했던 바, ‘국가주의 경제는 나쁘고 시장주의 경제가 좋다’ 고 했다. 1994년 WTO 가입과 1996년 OECD 가입, 그리고 1998년 이후의 IMF 시장개혁(구조개혁), 2011년의 한미 FTA 협정과 오늘날의 TPP 추진이 모두 ‘국가주의 및 중상주의 해체 만세’의 정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경제담론을 명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 그리고 한국의 공병호, 정규채, 복거일, 김정호 등은 그것을 (신)자유주의라고 자랑스럽게 부른다. 그리고 자신을 신보수 또는 뉴라이트(New Rights)라고 지칭한다.

그런데 한국경제가 여전히 전근대적인 중상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서 21세기 한국경제에서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의 진보적 성격을 역서라는 야권 인사들과 경제학자들 역시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말한다. 이들은 2016년 이 순간에도 ‘한국경제에서는 여전히 자유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재벌그룹과 관치경제가 존속되어 박정희식 중상주의는 여전히 강고하다’ 고 보며, 그 때문에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심해진다고 한다. 따라서 중상주의를 해체하여 고전적 자유주의의 시장 원칙이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비로소 소득 불평등이 해소되어 중산층이 두터운 경제, 누구나 공정·공평한 시장질서가 형성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들 야권 경제학자들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시장 원칙이 관철되는 경제’란 바로 이영훈 같은 뉴라이트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열렬히 주창하고 다니는 그것이 아니던가?

이렇듯 여권과 야권의 경제사상은 사실 비슷하다. 양자가 대동소이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자유기업원, 뉴라이트가 자유시장(free market)을 숭배하는데 반해, 야당과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공정한 시장’ (fair market)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숭배할 뿐이다. 하지만 양자 모두 시장 자본주의(market capitalism)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신봉하는 시장주의자, 자유주의자라는 점에서는 같다. 다시 말하지만, 양자는 크게 보면 같고(대동), 작은 지점에서는 다르다(소이).

새누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경제정신과 경제담론이 대동소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에 발생하였다. 2016년 4월 총선에 즈음하여 새누리당이 강봉균 전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이다. 물론 강봉균을 영입한 새누리당의

의도는 과거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의 고위 경제관료를 지냈고 또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를 도왔던 김종인 박사가 더민주당 대표로서 4/13 총선에 나섰으니, 역시 경제통이면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에 경제통으로 몸담았던 강봉균 전 의원을 영입하여 맞불을 놓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봉균 전 의원은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 여전히 강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시장주의 또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한국경제의 시장개혁 즉 미국식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총지휘했다. 또한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경제공약을 주도했고 그 후 열린우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까지 지냈다. 다만 그는 2012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서 공천 받지 못하자 탈당했다. 왜냐하면 그가 복지국가에 적극 반대하는 친시장 자유주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

2016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6년 11월 25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송민정
고용,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연구팀
주거	1/15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 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노동	2/5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 불리는 인터넷 매체, 본질은 '여론 통제' 다	김시연
잇·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세진
복지	3/14	1인 가구, '전 연령' 의 문제다	최정은
주거	3/18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① :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황서연 진남영
주거	4/4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연담하기	황서연 진남영
사회적경제	4/11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강세진
주거	4/15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권순형
청년	4/18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송민정
주거	4/22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황서연 진남영
경제	4/29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정승일
청년	5/2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최정은
청년	5/19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강세진
노동	6/14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 현황	송민정
청년	6/20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	새사연 노동연구팀
사회	7/4	가계경제, 2009년 경제위기와 닮았다	최정은
청년	7/22	나는 생활하는가, 생존하는가?	새사연 노동연구팀
청년	8/16	즐거분한 후퇴, 반쪽짜리 지방생활	송민정
주거	8/23	영국 임차인관리조직의 혁신사례 : 런던 브라운링 EMA(Estate Management Association)	황서연
사회	8/29	비영리단체의 정의 (Defining NPIs)	강세진
복지	9/5	쥐어짜는 재정, 개인 부담 늘고 복지 후퇴	최정은
경제	9/12	가계부채, 현재 부실화 막을 방안 세 가지	송종운
경제	9/19	[한국 경제동향①] 장기불황, 양극화, 낙수효과 소멸	김선태
경제	10/14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① 대한민국 불평등 시작의 원년, 1995년	정승일
경제	10/21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②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정승일
사회적경제	10/24	마을에서 읽는 관계 줄거리	강세진
노동	10/31	여성노동자 임금실태조사	새사연 노동연구팀
경제	11/4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③ '한류 드라마' 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주의	정승일
경제	11/7	삼부토건 사례를 통해 본 기업 및 금융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과제 ①	김영석
경제	11/11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④ '돈이 돈 버는' 재테크 자본주의	정승일
복지	11/14	시민이 스스로 하는 복지, 스웨덴의 시민봉사단체(Frivilligcentraler)	최정은
경제	11/18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⑤ 재산소득, 상위 1%가 '씩씩이'	정승일
경제	11/21	삼부토건 사례를 통해 본 기업 및 금융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과제 ②	김영석
경제	11/25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⑥ 보수는 왜 박정희를 배신하는가	정승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